

금융 Interview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경제 위기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백신은 부채 감축”

임수정 기자

“우리 국민은 위기를 타개하는 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표적인 경제 위기를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잘 극복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 국민이 결집한다면 굉장한 힘을 발휘해 극복할 것이다. 한국 대표 기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더욱더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의 자랑이다.”

‘이코노미조선’이 2020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만난 전광우(71) 초대 금융위원장(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선에 뛰었던 인물이다. 1988년 세계은행 재직 시절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특보를 맡아 외환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했다. 2008년에는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해결을 주도했다.

굽직굽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며 그는 우리 국민과 대표 기업의 독보적인 위기 극복 능력을 믿게 됐다고 했다. 반면, 후진적 정치 체제를 우리의 한계로 지적했다. 가령 5년 임기 대통령 단임제로 인해 반대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히고, 비슷한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도 바뀌는 정책 기조의 예측 불가능성이 한국 경제 성

위기에 강한 국민·기업 DNA
통합 리더십 부재 안타까워
기업 주도 경제 활성화 필요

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는 “더욱이 이번 정부가 보이는 반기업적 움직임이 과연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반

문하면서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합리적 수준에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뜻 아래 우리 국민을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부재했던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정치권에서 일했던 의사와

전광우 서울대 경제학,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학 박사,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
전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전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김흥구 객원기자